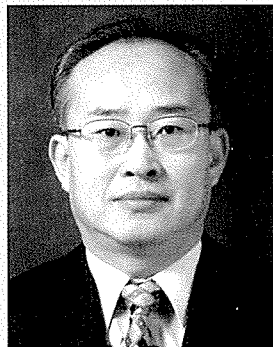


사랑과 관심과 배려는 발명의 어머니

한
의
담



바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1996-현재)
한국상표학회 회장(1999-2000)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2000-2001)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2-현재)
아시아변리사회(APAA)본부 상표위원회 위원장
(2003-현재)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현재)
NAF (미국중재연맹) 위원 (2006-현재)

발명이란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를 말한다. 한 마디로 물질적 창조 행위이다. 특허법에선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좀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인류를 불편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실천적인 자세, 우리 이웃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정신 등이 결국 발명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을 명예로운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발명과 사회적 성공, 명예와 부의 성취 등은 것처럼 대단하게 출발하지 않았다. 단지 가족과 이웃, 부부 사이에서 싹튼 크고 작은 관심과 배려, 따스한 사랑이 발명으로 이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걸 보고 영겁결에 관심을 기

울이다 보니 세계적 발명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다음의 소개하는 콩트 형식의 글들은 하나 같이 사랑 때문에 빛어진 발명 이야기들이다. 비록 해외에서 일어난 예화들이지만 모두 한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번안하여 소개한다.

공처가연합회장의 역전 만루 홈런

작은 제약 회사의 세일즈맨 임승구는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이기 이전에 아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경처가로 분류해도 좋을 사람이었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가계를 꾸

리다 보니 그는 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일이거나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만사 제쳐 둔 채 소매를 걷어붙이곤 했다.

한 마디로 말해 임승구가 사랑하는 아내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애처롭도록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슬아슬한 긴장을 안겨 주는 여자이기도 했다. 의외로 아내가 몸이 연약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린 편인 데다가 실수 연발이었으므로 그는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여보, 나 또 사고 쳤어.”

자지러지는 듯한 아내의 비명에 놀라서 돌아보면 영락없는 사고였다. 넘어져 무릎을 다치거나 어딘가에 부딪쳐 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온몸이 성할 날이 별로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음식을 만들며 도마질을 할 때건 과일을 깎을 때건 가리지 않고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게 다반사였다.

임승구는 것처럼 천방지축인 아내를 의식하며 자신이 제약 회사 영업사원이 된 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 병원에 판매하는 소규모 제약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승구는 붕대와 반창고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다치는 아내를 직접 치료하는 돌팔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출근하지 않고 아내 옆에서 하루 종일 지낼 수는 없었으므로 그는 늘 불안했다.

“나 없는 동안 제발 사고 치지 마.”

아침 출근 때마다 임승구는 버릇처럼 아내에게 주의를 주곤 했다.

“여보, 나 혼자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될 거 아녜요?”

“정말 그렇군.”

임승구는 그 날 당장 생각을 바꿨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사고를 당했을 때 아내가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반창고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제약 회사에서 몇 가지 재료와 약품을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얻을 수 있었다.

퇴근하자마자 임승구는 회사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한쪽 면이 끈적끈적한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손에 쥔 채 머리를 굴렸다. 거즈 한 조각을 패드 안쪽에 포개고 난 뒤 그것을 테이프의 중간에 얹던 순간 쾌재를 불렀다. 의외로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즐겁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얼굴 표정이 금새 어두워졌다. 그 밴드 반창고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은 천 조각을 붙여 가며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관리 기법을 찾기 위해 골몰했다.

밤을 꼬박 세운 임승구는 마침내 훌륭한 밴드 반창고를 완성시켰다. 끈적끈적한 테이프 부분을 씌워 두었다가 사용할 때만 떼어 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뽀뽀한 천 조각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반창고였다.

“여보, 당신을 위해 내가 만든 밴드 반창고야.”

날이 밝아올 무렵 절로 신이 났던 임승구는 단잠에 빠져 있던 아내를 깨웠다.

“당신과 결혼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여자네요.”

아내가 키스 세례를 퍼부으며 만족감을 표시했을 때 임승구는 쏟아지는 줄음과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다.

“어때? 이 밴드 반창고는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만든 발명품이거든.”

아내는 마실 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하듯 밴드 반창고를 보여 주었고 그걸 취미로 삼았다. 그러다보니 아내의 입방아 덕분에 임승구가 만든 밴드 반창고는 마을 안의 명물이 되었고 어느 날 이웃집 부인이 명쾌한 아이디어를 꺼내기에 이르렀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저 아내를 아끼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지만 발상을 바꿔 보세요. 남편께서 제약 회사 영업 사원인데 왜 상품화에 관심이 없지요?”

그 말을 들던 아내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정말 그랬다. 남편의 발명품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특허를 출원 등록할 경우 그 특허권을 팔아서 금방이라도 돈방석에 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퇴근하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심중을 털어놓았다.

“여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과 담판을 짓거나 경영진에게 공개하세요.”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내일 당장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세요.”

“맞아! 당신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 소위 경치가라는 남편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안한다면 경치가 자격을 잃고 말겠지.”

경치가 임승구는 그 이튿날 회사에서 외출하기 무섭게 특허를 출원했고 며칠 뒤 회사 사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사장님, 하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히트가 충분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임승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하자 연신 무릎을 치던 사장이 급히 지시를 내려 임원 간부 연석 회의를 소집했다. 그랬더니 말단 영업 사원 임승구의 특허권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결론을 내리마. 새로운 제품의 이름은 ‘승구밴드’로 정한다!”

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제약 회사 회장은 특허권 전용 실시권 계약 체결을 지시했고 아예 신제품의 브랜드까지 작명해 버렸다.

“임승구 사원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는 건 물론이고 임승구 씨를 부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회장의 특명을 받은 사장은 회사 안에 ‘승구밴드 개발팀’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담 연구팀을 구성하기 전에 특허권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부장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이사대우로 특별 승진된 임승구는 승구밴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임승구 명의로 전 세계 115개국에 특허를 출원 등록했고 7년 뒤에는 임승구가 그 제약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상호를 아예 주식회사 승구제약으로 바꿔 버렸다. 예상은 적중했다. 임승구 회장이 발명한 그 밴드 반창고 ‘승구밴드’는 대량 생산되어 국내외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승구제약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임승구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었다.

“승구밴드 주세요.”

약국에 들른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다. 이른바 승구밴드가 밴드 반창고의 대명사이자 중요한 구급 약품의 하나가 되어

버린 셈이었다. 그 밴드 반창고는 차츰 개량되어 더 좋은 제품으로 오늘도 여러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다.

임승구 회장은 별세하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켰다. 나중에 화가와 의사가 된 두 아들은 집 한 채 물려받지 않고 승구제약의 주식 지분을 각각 2%씩 상속받는 데 그쳤다. 임승구 회장이 생전에 뿌린 씨앗은 학교 법인 승구학원, 승구초등학교, 승구중학교, 승구고등학교, 승구대학교, 의료법인 승구병원, 승구실버타운, 승구제약 등의 거목으로 성장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전에 경치가연합회 회장으로 불렸던 임승구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그만두면서 남긴 명언이었다.

※ 실제로 밴드 반창고를 발명한 인물은 미국의 ‘어얼 디슨’ 이었다.

병 뚜껑에 담긴 사랑

충북 영동군의 한 농촌에는 그 마을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사이 좋기로 유명한 권영석·조명희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농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 해 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이는 들판에서 이들 부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농가의 일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쉴 틈도 없이 바쁜 것이어서 이들은 해거름이 되는 줄도 모르고 뺨손을 놀렸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기울었고, 하루 일을

마감한 그 부부는 다정한 모습으로 손을 맞잡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권영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이다 한 병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권영석은 복통을 일으키며 앓아눕고 말았다. 엉성한 병마개로 사이다가 그만 변질된 것을 모르고 마셨기 때문이었다. 권영석은 꼬박 사흘 동안 앓으며 고생해야 했다.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완벽한 병 뚜껑을 만들겠어.”

병 뚜껑을 저주하며 앓던 권영석은 완쾌되자 다시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다. 하지만 어찌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읍내에 나가 온갖 병 뚜껑을 주워 모았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조명희도 남편의 진의를 알게 되자 병 뚜껑 수집을 적극 돕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5년, 그들의 집 창고 안에는 자그마치 500여 종류의 병마개가 쌓였다. 수량으로는 3만 여 개가 넘는 엄청난 병 뚜껑을 모았고 본격적인 병 뚜껑 연구에 들어갔다. 다시 1년 동안 틈틈이 그 많은 병 뚜껑을 연구 분석한 그는 드디어 아주 특수한 병마개를 발명할 수 있었다. 그 병마개란 말 그대로 나사처럼 병 안으로 뚜껑을 돌려 넣어서 막는 ‘나사식 병마개’ 였다.

권영석이 발명한 나사식 병마개는 그 이전의 병마개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었으나 역시 사이다나 맥주를 담았을 때 가스의 압력을 견뎌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권영석이 자신의 발명품에 실망하여 울분을 터뜨리자 조명희가 위로했다.

“여보, 그만한 일로 실망하시는 건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의 발명품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 줘요.”

권영석은 그제야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재촉했다.

“아주 간단할 수도 있어요. 병에 철판을 모자처럼 씌운 다음 그 둘레를 왕관 모양으로 짝 찍으면 되잖아요?”

아내의 답변은 명쾌했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찌하여 이제야 그 말을 하는 거요?”

“사실은 저도 방금 떠오른 생각이거든요.”

권영석은 즉시 아내가 말한 대로 실험해 보았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동그랗게 자른 식별이를 병의 입구에 올려놓고 그 둘레에 압력을 가해 눌러 보았다. 아내의 생각은 한 치도 어김없이 적중했다. 이른바 ‘왕관 병 뚜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특허 출원을 거친 그 발명품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권영석·조명희 부부가 돈방석에 앉은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농토를 늘리고 과수원과 저택을 마련한 뒤 남은 돈을 각종 공익 재단에 기부하면서 그들 부부는 더 행복한 전원 생활을 만끽할 수 있었다.

농부 권영석은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병 뚜껑을 모으다가 새로운 병 뚜껑을 발명했다. 다시 말해 잉꼬 부부의 옥동자로 태어난 것이 바로 왕관 병 뚜껑이었다. 현재 병 뚜껑은 무척 다양한 재질과 수많은 종류의 디자인과 기능으로 분류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병 뚜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왕관 병 뚜껑’일 것이다. 왕관 병 뚜껑은 소주나 맥주·콜라·사이다 등 가

장 소비가 많이 되는, 이른바 대중적인 술과 음료수의 병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익숙하다.

병 뚜껑을 발명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 권영석이었다. 5년 여 동안이나 이어진 그 남편의 끈질긴 집념과 아내의 순간적인 기발한 착상이 조화롭게 빚어낸 이 발명품은 아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걸작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돈방석에 앉은 우리 부부가 이웃들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전 재산을 여러 사회 단체에 기증하고 단출하게 아내와 함께 말년을 즐기던 권영석이 여성지 인터뷰 때 맺은 말이었다.

※ 실제로 병 뚜껑을 발명한 인물은 미국의 ‘페인타’ 부부였다.

아내를 위한 선물

그대는 골무를 아는가. 바느질할 때 바늘을 눌러 밀기 위해 바늘 권 손가락 끝에 끼는 물건이다.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예전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에겐 참으로 소중하고 흔한 물건 중의 하나였다. 최근 들어서는 구두 수선을 하는 구두 미화원이나 골무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여튼 한때는 바느질할 때 없어서 안 되는 물건이 골무였다. 이 하찮은 골무도 손색 없는 발명품이었다면 믿어지거나 할까. 하지만 사실이다. 아주 가난한 소시민이 아주 작은 골무를 발명함으로써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 됐으니 말이다.

그 주인공은 형편없이 무능력한 월급쟁이였다. 피혁 공장 노동자 광동근이 벌어들여 주

는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기 어려웠던 그의 아내는 결국 취업 전선에 출정해야 했다. 출정이라고 해 봐야 샴을 받고 해 주는 바느질이 고작이었다.

퇴근해 집에 들어서던 길에 광동근은 아내가 생계를 돕기 위해 샴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풍경을 지켜보던 광동근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 당신, 언제 왔어?”

아내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재봉용 곰보 쇠골무를 벗던 순간 광동근은 아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곱디곱던 손가락이 빨갱게 부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손가락이 왜 그래?”

“별거 아냐. 바늘에 몇 번 찔렸을 뿐이지.”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몹시 따가운 듯 입김으로 손가락을 호호 불고 있었다. 그러더니 연신 자신의 손가락을 빨았다.

“식사는 했어?”

“직장에서 회식 마치고 오는 길이야.”

“그러면 다행이네. 일이 잔뜩 밀려 있거든.”

아내가 다시 그 쇠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계속하는 동안 광동근은 가슴이 저려 견디기 어려웠다. 재봉용 곰보 쇠골무가 손가락에 박혀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혀를 꼴꼴 찼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샴바느질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 날 저녁부터 광동근은 머리를 싸매고 매달렸다. 그는 손가락을 아프게 하지 않는 골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 새로운 골무 개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광동근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가죽 조각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다!”

광동근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던 순간 중얼거렸다. 골무를 만들 때 쇠붙이 대신 부드럽고 질긴 가죽을 사용하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죽 골무 하나를 만든 그는 퇴근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골무야.”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 본 거야. 맘에 들지 모르겠네.”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야.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네.”

아내는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며 기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뒤로 더 열심히 샴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이 아프지 않으니 능률이 올랐고 수입도 늘어갔다.

“내가 발명한 골무를 특허로 출원할 생각이야.”

술에 만취해 들어온 광동근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여보, 술주정하는 모습이 귀여워 죽겠어. 작은 골무 하나로 발명가가 되겠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미있게 들리네.”

아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절대 농담이 아냐. 이 가죽 골무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마치면 골무 공장을 설립할 작정이야. 친구 놈과 그 일을 구상하며 술을 마셨어.”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 같아요?”

순박한 아내는 실감하지 못했다.

“원료는 내가 다니던 피혁 공장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구할 수가 있거든.”

“아니! 다니던 공장이라니? 사표를 냈다는 말야?”

“작업은 안방에서도 가능해. 별도의 공장을 설립할 돈도 필요없어.”

곽동근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여보, 아무래도 불안해. 직장에 다니면서 추진하면 어떨까?”

“나를 믿어 봐. 내 일생의 승부를 이 골무에 한번 걸어 보겠어!”

곽동근의 결단 앞에서 결국 아내가 두 손을 들고 말했다. 며칠 뒤부터 시장에 나온 곽동근의 가죽 골무는 인기를 얻었고 주문량도 날로 늘어갔다.

“아직도 결함이 많은 제품이야.”

곽동근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 유사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가죽 안쪽에 셀룰로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나무 판자를 붙이기도 하는 등 무려 11종에 이르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 어느새 ‘골무’ 하면 ‘곽동근 골무’를 떠올릴 정도로 그의 골무는 유명 상품의 반열에 오르는가 싶더니 마침내 시장을 석권했다. 그 뒤 50여 건이 넘는 골무를 개발한 그는 ‘골무의 대부’라는 칭송을 들으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 실제로 골무를 발명한 사람은 일본의 ‘이시가와’였다.

할머니의 손자 사랑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군불을 지핀 시골 온돌방 안이어도 한겨울의 냉기를 이기긴 쉽지 않았다. 60대 초반의 할머니 김갑순 여사는 아들 내외가 5일장을 보러 외출하자 두 살 난 손자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손자는 온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 짓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녀석은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싶더니 어느 새 마루를 쓸고 다니기 시작했다. 반들반들하게 청소해 놓은 마루 위에서 곡예를 하듯 기어다니는 손자 녀석이 불안해 보여 마루 끝을 오락가락해야 했다. 그래도 비틀거리며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갑순 여사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아니! 저런!”

양말 신은 발이 미끄러운 듯 아기가 금방 넘어질 것 같아 소리쳤다. 하지만 녀석은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는 게 즐거운 모양인지 깔깔댔다.

“그래, 건강한 녀석이니 감기가 대순가. 넘어져 코를 깨는 것보다 낫을 게다. 너 이 녀석, 아예 양말을 벗어 버리자꾸나.”

김갑순 여사는 아기의 양말을 벗겼다. 아, 그랬더니 잘 뛰어 놀던 녀석이 이번에는 발이 시린 듯 발가락을 움츠리는 게 아닌가. 그것은 진퇴양난이었다. 양말을 신겨 놓자니 넘어질 것 같고 벗겨 놓자니 발이 시린 것 같고……. 손자를 위해 그녀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다.

무엇보다 마루나 방바닥을 뛰어다녀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는 양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김갑순 여사에게 그런 양말을 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날 밤 그녀는 손자의 양말 바닥에 등글게

자른 고무를 붙여 보았다. 신기하리만큼 미끄러지지 않았지만 여간 따뜻한 게 아니었다.

다음날 김갑순 여사는 손자가 그 양말을 신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아이의 것과 비슷한 양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차라리 방 안에서 신발 대신 신을 수 있도록 양말 윗부분을 잘라내었다.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으니 여간 편리한 게 아니었다.

“어쩐 이렇게 좋을까.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며느리가 신어 보더니 탄성을 질렀다.

“어머니,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들도 그 슬리퍼를 신어 보는 순간 감탄했다.

“우리 식구만 신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 말 끝에 아들은 특허 출원을 생각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 드리죠.”

그 이튿날 김갑순 여사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여 특허를 출원했다. 변리사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김 여사와 며느리는 밤이 이슬하도록 실내화를 만들었고 며칠 뒤 시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놀랍게도 진열하기 무섭게 팔려 나갔다.

요즘 흔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내화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김갑순 할머니는 그 소박한 특허 하나로 자손들에게 8층 빌딩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성공 비결과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녀가 남긴 단어 ‘가족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남겼다.

“할머니, 발명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오직 ‘가족 사랑’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구체적으로 발명 동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족 사랑’……, 그것 뿐이었다니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표현했다.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나면 그게 바로 천우신조였고, 발명의 경우에도 천우신조처럼 다가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물론 우연치 않게 놀라운 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에서도 읽었듯이 인간 사랑이 그 뿌리가 된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가정 주부들의 발명 중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의외로 많아 옷깃을 여미게 한다. 대부분 남편이나 가족들을 위해 만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발명이 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의 실내화도 이러한 ‘가족 사랑’에서 비롯된 발명품 중의 하나였다.

※ 실제로 실내화를 발명한 인물은 일본의 ‘마츠이’ 여사였다.

이처럼 위대한 발명은 일확천금의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시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내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 등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없는지 어디 한번 눈을 돌려보자.